



새벽 2시의 도량석. 활안 스님이 직접 하신다.



불자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불. 한번도 거르지 않는다.

“올해 어떤 농사 지으시렵니까?” “마음밭 갈아야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활안 스님 (조계산 천자암 조실)

새벽 2시 도량석 시작으로 발일·정진으로 하루 짝차 백일정진중엔 방문밖 안나서

조계산 천자암 조실 활안(活眼·81) 스님이 백일 정진중이던 소식을 들었다. 친견하고 싶었다. 밀지 감치에서나마 큰 스님의 정진을 훑쳐보고 싶었다. 혹여 세속에 살면서 열키고 쉼긴 인연줄의 꼬트머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다.

천자암 스님의 가행정진은 익히 들었던 바이다. 80이 넘은 노구에도 새벽 도량석은 물론 손수 발일과 수행을 병행한다. 스님의 눈푸른 수좌 기운은 초발심 그대로여서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며칠을 남아나지 못했다. 스님따라 일하고 공부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그러할진데 백일 정진이 가히 짐작이 되었다.

서물렀던 길이건만 밤이 되어서야 천자암(天子庵)에 올랐다. 하늘사람이 사는 곳 이어서인지 유난히 별들이 총총하고 가까웠다.

스님의 주석처인 '염화조실'에서도 불빛이 새어 나왔다. 저녁 정진을 마치고 기도객들과 법담을 나누던 중이었다.

“무슨 물건이 와서 이렇게 대하는가?”

“.....”

어둠이 깔려는데 스님이 또 물었다.

“몇 걸음에 왔는가?”

“한 걸음에 왔습니다.”

혹여 말씀이 중단될까봐 사진기자가 즉각 답하자 스님은 ‘아니다’며 잘라 말한다.

“한 걸음도 의미가 없다. 모자라야 한 걸음이지.”

인사를 곁한 청법 삼배가 끝나기도 전에 졸지에 몇 방 얻어맞았다.

“부처보다 그 이상을 말하지 못하면 귀신이지. 네 놀같은 이가 바로 아는대는 귀신이고 뱀처럼하는데 등신이야.”

스님은 앞 듯 모를 듯,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선 무어가 좋은지 마냥 웃어제킨다. 박장대소하는 한산 습득을 보는데도 하다. 스님은 장난기 휩쓸 넘치는 어린이 그대르었다.

고양이 앞의 쥐가 되어 찢릴 땀지만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며 질타하시는 스님이 싫지 않았다.

그날 발뚛도록 그렇게 얻어맞다가 스님방에서 물러났다.

스님은 1926년 병인(丙寅)생이다. 세수로 81세. 20대에 출가하여 지금까지 수행자 본분을 지키는데 한 치 흐트러짐없이 살았다. 50여년전, 오대산 북대에서 정진하면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계오름’에 있어서는 단호했다. 그 모양이 어찌나 무섭던지 호랑이마인 스님은 자연스럽게 ‘오대산 호랑이’로 불렸다.

조계산에 주석하면서부터 마친가저다. ‘조계산 호랑이’가 된지 어느덧 30년이 넘었건만 새벽 도량석 묵탁을 놓지않는다.

스님의 백일정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함이 있다. 정진중에는 산문밖은 물론이고 방문밖도 나서지 않는다. 방안에서 손수 공양하고 정진한다. 법당에서보다 더많은 시간을 보내는 발일도 정진기간에는 중단된다.

스님의 백일정진 발원은 ‘안정’이다. 주로 나라와 종단의 안정을 기원한다. 더불어 유주무주 고힌천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사회가 시끄럽고, 도량이 어수선하면 스님은 어김없이 백일정진에 들어간다.

다음날 새벽 2시, 어김없이 도량석 묵탁이 울렸다. 새벽정진은 5시30분까지 계속했다. 10여명의 기도객이 함께했다. 독경, 정근, 축원으로 진행되는 동안 스님은 한자리에 꿇듯 서서 정진을 이끌었다.

이러한 스님의 정진은 오전 8-10시, 오후 2-4시, 저녁 6시30분 예불까지 네 번에 걸쳐 진행된다.

정진이 간절하면 초인이 되는가보다. 1시간만 독경해도 목이 험뉘듯 하건만 한번 시작한 정진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백일정진은 4월 10일 회향한다. 정진을 마치고 법당문을 나서는데 스님앞에 버티고 섰다.

어쭙고 싶은 말은 많지만, 평생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수행자의 본분이 증명했다.

“사람에게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어, 심성 밝히는 일이 먼저 할 일이지. 그래서 출가했어. 이제껏 실수없이 걸어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행복이나 사람이 싫다는 것도 그렇고, 연애하지는 꼬드김도 받았어.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아나바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거야.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었지. 이제는 천번 만번 실패해도 꼬달리지 않아.”

“인과에 떨어지기보다 매이지 않는다”는 백장선사의 ‘합’처럼 “인연에 꼬달리지 않는다”는 스님의 가르침이 가슴을 울린다.

“이제 불입니다. 새벽엔 출타니 해가 뜨니 따사롭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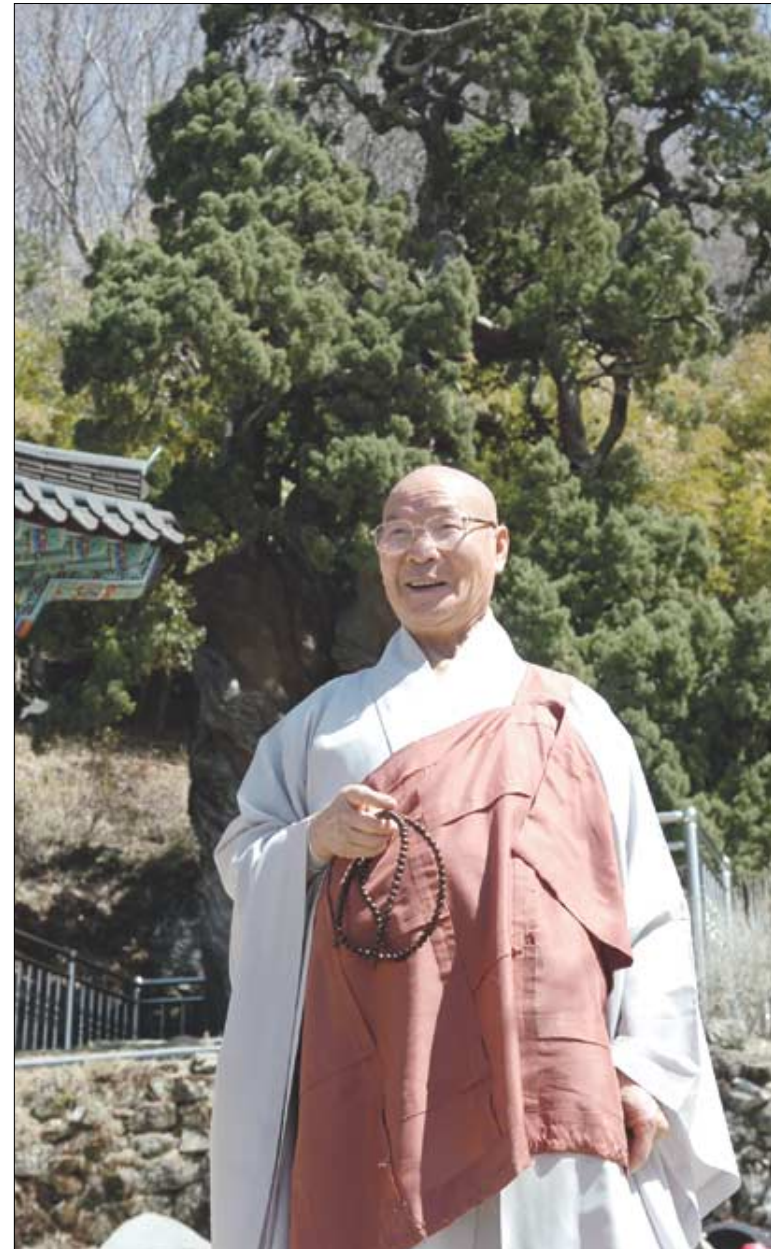
“그것이 생명 재통되는 소리이지.”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으시렵니까?”

“심전(心田)을 갈아야지. 마음밭을 갈아 생명 씨를 틔울거야”

스님의 마음밭, 조계산 꼭대기에서 가을 바람이 내려올때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보여 주시리라.

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활안 스님은 30년 넘게 조계산을 지키며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기르치고 있다.

조계산서 30여년 정진, 백일특별정진만 백번 넘어

활안 스님은 활안 스님이 조계산 천자암에서 발걸음을 멈췄던 때가 1974년. 이후 이곳에서 30여년을 한결같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정진’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오두막 한 채가 전부였던 천자암도 세월이 흘러 격을 갖춘 법당과 선원이 들어섰다. 법왕루, 종각, 나한전, 산신각과 요사채가 들어서 풍채 당당한 기암으로 거듭났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쌍향수(천연기념물 88호)와 스님의 정진본이다. 스님은 매년 1-2차례 특별정진을 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정진만 백여차례를 넘게 해 왔다. 스님은 1926년 전남 담양 용연리에서 6남 1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1945년 광복되던 해 순창 순행사에서 효봉스님의 은사인 석두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당시는 총제적 혼란기여서 뒤늦게 1953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승적에 올랐다. 이후 수덕사 법주사 불국사 상원사 칠불암 등 제방선원에서 40년거를 성만했다.

삼사순례 및 방생. 기도영험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해사**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귀머고, 눈멀고, 다리불구이거나, 곱추거나, 정신이상이거나, 여러가지 신병에 걸렸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명호를 듣게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소원을 이루리라는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소원이루시길 바랍니다.

불사안내

- ◆와 불: 1구좌 100만원
- ◆음속부처님원불: 1000만원
- ◆후불영화: 300만원 (음속부처님은 옥불로 모심)
- ◆협사불: 각 700만원
- ◆전 불: 한부처님 30만원
- ◆계좌번호: 능협 331036-51-062531 동해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범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30-0705

5월 15일 출발 실크로드 성지 순례 12일
(5월 6일까지 마감)

동참금: ₩ 1,990,000원 (개인 경비 외 모두 포함)

순례 코스

- 서안 - 법문사 불지사리, 병마용
- 난주 - 불교 벽화의 진수 병영사 석굴
- 둔황 - 둔황 예술의 결정 막고굴, 신비의 산 명사산
- 투루판 - 천불동, 아스타나 고분군, 서유기로 유명한 화염산
- 쿠얼러 - 버스팅 호수
- 쿠차 - 천산 신비 대 협곡, 키질 석굴
- 카스 - 향비묘, 청진사, 카리쿠리 호수
- 우루무치 - 천산천지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450,000원 (최동매리 이용)

북경 사할 순례 및 관광 7일
(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
₩450,000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본래 내 마음자리 바로 봐야

활안 스님의 가르침

지금부터 1천2백 여 년 전에 중국에 마조(馬祖 道一)라는 큰 망아지가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답사(踏死)시켰습니다. 조사니 선사니 할 것 없이 다 밟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조 스님 슬하에는 84 명의 입실제자가 있었고, 따르는 제자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마조 스님이 하루는 제자인 백장(百丈) 스님에게 “내가 숨을 안 쉬게 되면 체와 육(부처님의 근본 법과 근본 법의 쓰임) 두 가지를 중생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러 백장 스님이 되물기를 “스님은 나에게 법을 마지막 전하실 때, 양의 뼈와 살을 굴러서 어떻게 중생에게 파종하시겠습니까? 법을 명실공히 전하시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 역시 주장자를 들어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몸뚱이는 마음의 옷

몰랐을때 생사가 돌이키지만

알고 나면 본래 공해

제자 역시 이것을 버리고 써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 옳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조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할!”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백장 스님은 3일 동안 귀가 딱 막혔답니다. ‘통련일할 만기복(通玄一囑萬機伏)’ 하니, 통련 장자의 할에 온갖 번뇌망상이 굴복하니, 법신 경계, 보신 경계, 회신 경계가 다 일망타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삶을 일망타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생활용법은 천하에 간단합니다. 일종의 숫자 놀음과 같아서 크나 작으나 간에 내 삶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파악이 되면 먼저 납득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숫자가 100인지 200인지, 그렇게 되면 그 숫자를 분해할 수도 있고, 능히 조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립이 잘 되면 모든 중생 한 사람 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크거나 작은 대로 그 존재의 삶은 끝없이 빛이 납니다.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생을 보는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마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재롱 떠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처럼, 자식 잘되는 것이 제일인 어머니의 마음처럼 행복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자비의 마



속마음을 굳건하게 지니고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는 활안 스님.

음입니다. 이처럼 중생의 삶이 빛이 나면 이 활안이란 중의 마음은 끝 없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공정(公正)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삶의 숫자를 파악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래의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바르고 밝게 깨는 지혜로써 내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우주 만물이 생기는 법, 죽는 법이 이루어지기 전의 본래의 내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어떤 절대자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내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바로 나만이 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여자가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면서 수행을 마루고 돌러대고 변명을 합니다.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하기 싫어서입니다. 변명도 시방삼세 부처님이 꼭 짚을 수 없는 큰 변명을 하던 성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으름과 고통만 남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해 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흥분하고 그림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한 생각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내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는 마음의 옷입니다. 몰랐을 때에는 몸뚱이의 생사가 돌이키지만, 알고 나면 생사가 본래 공한 것입니다. 마음의 옷이 더러우면 빨아 입고, 떨어지면 기워 입고, 못 쓰게 되면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끝없이 빛이 납지, 판단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 마음 근본의 흰 바탕 즉, 내 자성자리를 바로 보는 것, 조금도 틀을 주지 않고 자성자리를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혜가 생겨서 내 마음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일구 참선이나 그 회두를 선택 하든지 아니면 아미타불을 염하든지, 아니면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반야심경> 그도 아니면 찬탄의 노래라도 선택하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이나? 시간과 공간은 원래 공한 것이고, 삼라만상도 본래 공한 것이고, 그 공은 일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일념이라면 ‘양동 태허(陽動 太陽 虛: 양이 움직이니 크게 비워지다)’이며, 능히 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데로 노력하면 아주 큰 것은 아주 작은 것의 양이 되고, 아주 적은 것은 아주 큰 것의 근본이 됩니다. 이렇게 진실해지면 이 공덕으로 나와 남이 모두 성불할 것입니다.

바닷물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항상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밑바닥은 연못보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거칠고 힘든 일을 당해 울고 웃고 할지라도, 속마음은 돌보다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합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닷속 고요가 출렁이는 파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처럼.

정리=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9>



아난존자와 결혼하는 법(1)

부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자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화들을 통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사람’이 관련되어서 그런지 통통뽕뽕 물러오는 감동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마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런 저런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술이란 게 사람들을 홀리거나 액난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거나 것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들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들의 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탁발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아난존자가 그 우물가를 지나치다가 그 처녀에게 물 한 잔을 청하였습니다.

경전을 통해 아난존자의 면모를 추리해보면 대체로 매우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정이 많고 눈물도 많습니 다. 게다가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니 출가하기 전에 왕가에서 익힌 그 귀족적인 풍모와 행동거지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무심코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건네주려고 아난존자를 향해 몸을 돌리던 마들의 딸은 제 눈

“제발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분이 스님이라서 안 된다면 어머니에게 좋은 기술이 있잖아요. 남자를 골짜 못하게 만드는 모든 술법을 다 써서라도 제 앞에 그 분을 데려다 주세요.”

사랑에 눈이 먼 마들의 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아난존자의 그 모습이 어른거리니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거나 딸을 살리고 봐야겠기에 마들은 탁발하러 나선 아난존자를 흥미하게 만든 뒤에 제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에 밀어 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곱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던 그녀는 아난존자에게 온 몸을 던졌습니다.

“시간아, 어서어서 지나라. 이 밤만 지나면 이

분은 내 남편이 될 것이라.”

그녀는 아난존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그를 깨우고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그러던 아난존자의 눈, 코, 입과 귀를 쓰다듬고 그의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난존자는 자기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아난존자에게 한눈에 반한 마들의 딸

막무가내로 유혹... 해결에 나선 부처님은?

을 의심하였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동작하며, 음성, 눈빛이 이 세상사람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들의 딸은 그만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난존자의 뒤를 밟아 그 처소를 확인하고 부처님의 제자임을 알아낸 뒤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람결이 살랑 땀에 달아도 주르르 눈물을 흘렸고, 문이 덜컥 거러도 짹짹 짹짹 놀랐습니다. 그런 딸을 지켜본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사랑한단 말이지? 아이고, 이것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나? 그 분은 왕자님 이셨다가 그 부귀영화도 싫다 하여 머리 깎고 출가하신 분이야, 그러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아주 근사한 청년을 알아보마.”

하지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무조건 아난존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아난존자를 만나러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고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여인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대답만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저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리도 애절하게 매달리지만 이미 출가의 길을 선택한 구도자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경전에서는 그의 외침을 듣고 부처님이 어떤 기적을 부러서 그를 마들의 집에 빠져나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난존자를 유혹하려다 실패로 끝난 마들의 딸은 그를 향한 사랑을 달랠 길이 없어 아침마다 탁발을 하러 나가는 아난존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몹시 부끄러움을 타는 아난존자는 결국 탁발을 하러 나가지 못하고 절 근처에서 이제 나 저제나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마들의 딸은 슬피 울며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이 해결사로 나서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마들의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난이 그리 좋으냐?”

“네, 부처님.”

“그럼 내가 두 사람을 맺어주겠다.” (불설마 등너해행중유사경. 계속)

■ 이미형(통곡역경원 역경위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유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경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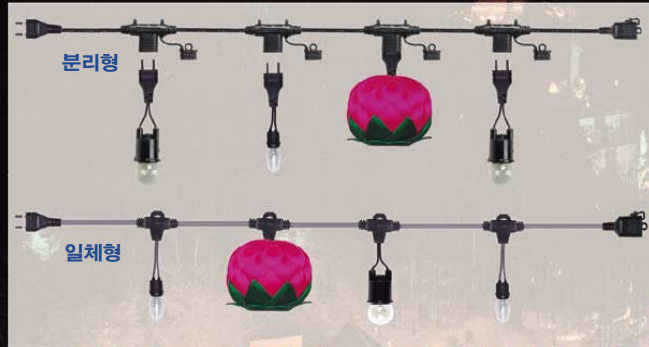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 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 (정정애)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별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별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갈 때까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일들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안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 청사조명 및 초롱 길이대

연 등 (정품)

- ▶ 법당용(공단형),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철,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